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경기편 vol.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경기편 vol.1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 경기편 vol.1

인 쇄 2019.12.20 발 행 2019.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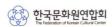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인 김태웅

기 획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이 음반은「한국문화원연합회"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이 음반은 저작권법에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경기편 vol.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과 협력하여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는 경기도 지역의 역사, 설화, 문화재,

지역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소재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가와 협력하여

대중음악 형태의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소재를 콘텐츠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음악가를 발굴하여 지방문화원과의 협력 구조를 만들고 문화원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노래는 지역문화원을 통해 지역축제,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람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 지역노래 콘서트, 지역노래 뮤직비디오 등 지역노래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Contents**



01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5'53"]	
02	동구릉에서 [3'06"]	구리문회원
03	화성가는길 [3'49"]	수원문회원
04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 호조벌에서 [3'32"]	시흥문화원
05	유앙팔경 [2'43"]	양주문화원
06	같이걸을까 [3' 26"]	광주문화원
07	금수정에 올라 [3'00"]	포천문화원
08	도미아리아 [3'58"]	하남문화원
09	우리는 파주랍니다 [3'57"]	파주문화원
10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 [3'32"]	Instrumental ver.



01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5'53"]	
02	동두천 CITY POP [3'06"]	동두천문화원
03	달과 바람에실어 [3'49"]	광명문화원
04	평택은 들이다 [3'32"]	평택문화원
05	처인성 연가 [3'46"]	용인문회원
06	내 사랑 연천 아리랑 [4'43"]	연천문화원
07	다시 꿈꾸는조강 [3'43"]	김포문회원
08	장호원 난다 [5'12']	이천문화원
09	Two Steps Behind [4'35"]	
10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5'53"]	Instrumental ver.

#### 경기의 노래

A

작사 윤한택

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노래 모든참여자

#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윤한택 교수는 '임진강'과 '평화'라는 단어는 꼭 넣어주었으면 했다. 경기 천년의 역사는 DMZ로 상징되는 전쟁 그리고 평화가 언제나 중요한 아젠다였다. 때문에 갈라진 판문점 틈새에 새 살을 발견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이노래는 경기도를 노래하는 유일한 곡이 아니다. 그럴 수도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사람에게 수많은 얼굴이 있듯이 경기도민의 수많은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다. 이하나의 얼굴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곡가, 연주자, 가수, 스태프 등이 모두 함께 만든 곡이다.

천년 새해 먼동 튼다 임진강 쳐진 어깨 절로 춤추고 갈라진 판문점 틈새에 새살이 <del>돋는</del>다 ×2

손길마다 눈길마다 (더운 가슴 고른 숨결) (하얀 속살 눈부시게) 경기는 하나 나라도 하나 온 세상 하나 가고 오는 즈믄 경기 함께 이으세 지고 피는 즈믄 경기 함께 이으세 평화로운 천년 경기 함께 이으세 가고 오는 즈믄 경기 함께 이으세































### 구리문화원

소재 <del>동구룡</del>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이다운

# A

## 동구릉에서

동구릉은 구리의 동쪽에 있는 9개의 조선 왕릉으로 세계 문화유산이다. 우거진 숲과 능역을 가로지르는 개울의 아 름다움으로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알려진 곳. 학창시 절 누구나 한 번쯤 소풍갔던 기억을 떠올려 경쾌한 리듬과 색소폰 연주로 노래하며 걷고 싶은 이미지의 곡.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왕숙천 둘레길을 따라 보면 저 넘어 보이는 동구릉 언덕 위에 펼쳐진 구름이 그린 하늘을 보며 우리 함께 올라 가 볼까

가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억새 잎은 손흔들며 인사 하고 복잡했던 오늘도 여기 올라 파란 하늘 보며 괜찮아 잠시 쉬었다 다시 해 보자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왕숙천 둘레길을 따라 보면 저 넘어 보이는 동구릉 언덕 위에 펼쳐진 구름이 그린 하늘을 보며 우리 함께 올라 가 볼까







### 수원문화원

소재 수원화성

작시 정수자 작곡 문혜주

편곡 문혜주

노래 윤덕현

## 화성 가는 길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원화성을 소재로 한 시 '화성 가는 길'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 조선 당대의 모든 기술의 집약, 계획 도시, 시조, 그리고 재즈가 만나 시간여행을 하는 듯 담담하고 여유로운 재즈보컬이 매력인 곡.



### 華城 가는 길

정수자

화성으로 가는 길은 깊고 그윽합니다 고전의 오솔길을 호젓이 혼자 든 듯 잊었던 무슨 소리들이 길을 연해 흔듭니다

이득한 층계 너머 이끼 푸른 행간 너머 거중기 거친 숨과 땀내 밴 함성 사이 맨 처음 밑돌을 놓던 흰 떨림이 보입니다

성벽에 귀대인 채 그 울림을 따라가면 안으로 드는 건 곧 뿌리에 가 닿는 일 저마다 찾는 길들이 길 끝으로 서립니다

그쯤에서 굽이굽이 말씀을 어루다가 고여 둔시간들을 고이 받아 적으면 화성은 한 채의 경전, 늘 새로운 빛입니다

















### 시흥문화원

A

소재 호조벌 작사 이바오 작곡 이바오

편곡 이상진 노래 권소린

##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 호조벌에서

시흥은 넓은 바다를 백성들의 구휼미를 위해 축조된 땅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전근대 인천과 안산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호조벌 간척으로 남북을 잊는 하나의 권역이 되었다. 현재 시흥시의 생활권 대부분이 간척지인 호조벌로, 짠내나는 바다가 생명의 땅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된지난 300년의 의미를 어머니의 마음에 빗대어 만들어진곡. 깨끗한 보컬과 경쾌한 리듬으로 활기찬 일상을 노래한다. 간주에 흐르는 랩 또한 매력적인 아이디어 넘치는 곡.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바쁜 일손 거두고 저린 허리 펴면서 저물녘 들판 너머 시름 꽃이 피었네

\*땅은 믿음이요 땅은 생명인데 소금기 거두어 생명의 땅을 위해 어머니 마음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곳 호조벌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라 호조벌











### 양주문화원

A

 소재
 유양팔경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조용준

## 유양팔경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여덟 가지 빼어난 경관인 유양필경을 소재로 만들어진 곡이다. 양주산성에서 바라보는 해지는 모습, 불곡산 계곡의 기당폭포, 백화암(白華庵)의 새벽종소리, 기당폭포 주변 진달래 핀 풍경, 금화정(金華亨)에서 바라본 민가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굴뚝 연기, 승학교와 주변에 어우러진 버드나무의 풍경, 금화정에서 바라본 도봉산 영봉 위에 뜬 초승달, 수락산 영봉에 감도는 구름의 풍경을 담은 곡. 양주를 여행하듯 그려지는 여덟가지 경관을 경쾌한 멜로디에 얹어 쉽게 부를 수 있도록한 트로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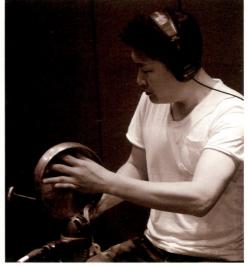
산성낙조에 곱게 물든 노을빛을 바라보며
기당폭포 내리 쏟는 소리는 또 우렁차도다
백화암에 종소리는 달빛과 함께 은은한데
불곡산선동 진달래꽃 뛰어나게 향기롭구나
유양팔경 유앙팔경
이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이름다운 유양팔경

금화정에서 바라보는 연기 또한 평화롭고 승학교에 버드나무는 봄기운을 자랑하네 도봉산 영봉 위에 뜨는 저 초승달을 바라보니 수락산 영봉에 감도는 구름과 함께 장관일세 \*유양팔경 유양팔경 이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이름다운 유양팔경









### 광주문화원

소재 남한산성

작사 장현숙

작곡 장현숙

편곡 장현숙

노래

최다예

## 같이 걸을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주의 남한산성은 7월의 솔향기가 싱그럽다.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사계절 아름다운 남한산성에는 총 5코스의 둘레길이 있다. 젊은 느낌을 더해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이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다. 누구와도 같이 걸으면기분 좋아질 것 같은 어쿠스틱 팝에 같이 이야기 하는듯한보컬의 음색이 매력적인 곡.



같이 걸을까 비그친 싱그런 길 따라 같이 걸을까 네 손잡고 걷다보면 다 잊을 수 있어 같이 걸을까 초록초록한 길 가득 담쟁이 새머루 꽃구경 하다보면 꼭 잡은 손만큼 마음도 따뜻해 질거야

\*남한산성 둘레길 도란도란 얘기하며 잠시 힘든 일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달맞이 꽃기린초 황벽나무 산딸나무 풀 내음 흙냄새 가득 담아가자

가끔 이렇게 나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신선한 공기 마시며 버거운 하루 여기 묻어놓고 가자 같이 걸을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옆에 너와 함께면 정말행복 할 것 같아

잘될거야다잘될거야음-

















### 포천문화원

소재 <del>금수</del>정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권소린

## 금수정에 올라

영평8경 중 한 곳으로 오가리 마을 앞을 흐르는 영평천(永 平川) 변 절벽 위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정자인 금수정을 소 재로 만든 곡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역 곳곳의 아름답 고 소중한 곳을 소개하고 노래하는 의미로 만들어 졌으며, 도심을 살짝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상쾌하고 포근한 이미 지를 주는 곡.





내 맘을 두드리는 너 내 가슴이 설레는 시간 은은하게 스미는 향기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다가간다 조금씩 멀어지는 도시 두 눈 감고 귀기울이면 어느샌가 들리는 물소리 너머 내게 손짓하는 너 마냥 웃음만 난다

어쩌면 그리웠을지 몰라 기다렸던 날 보며 따뜻하게 반기는 이맘때면 너와 함께 해서 생각나는 올해도 다시 다시 찾게하는 곳 금수정에 올라 함께 불렀던 노래는 너도 아직 잊진 않았을거야















### 하남문화원

소재 도미설화

작사 이바오

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노래 김성준

## 도미아리아

도미는 백제 개로왕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과 정에서 눈을 잃는 참혹한 고문과 시련을 겪었다. 팔당나 루에서 배를 타고 떠내려가며 절규했던 상황을 묘사했 다. 하남의 도미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록뮤지컬 아리아 형식의 곡.



슬퍼하면 할수록 그리워진다 가난함은 거대한 힘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절망은 용기로 변하여 비틀린 눈은 진실을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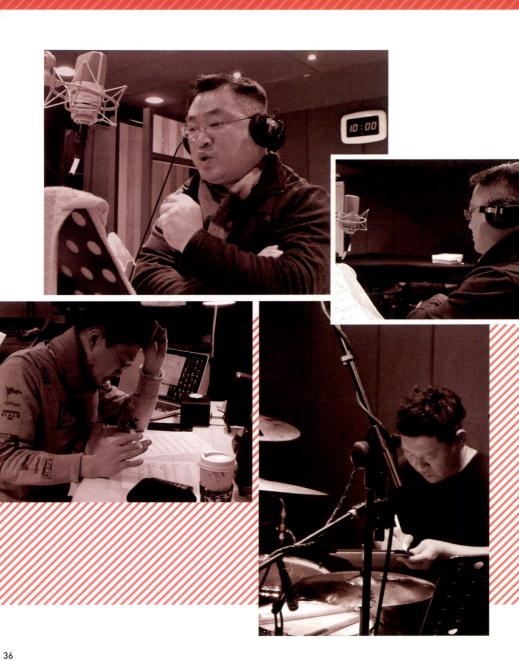
진실은 어처구니없이 참혹했다 사랑할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덧없는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걸음이 당당하라

나는 지금 깜깜한 어둠이다 노를 멈춰라 바람의 소릴 들어라 진로는 동쪽으로 당신의 목소릴 향해 개로의 역사가 끝난다 이윽고 개로의 역사가 끝났다

상처가 깊을수록 부드러워진다 억울함은 거대한 힘이 되고 힘은 어느샌가 시가 되어 용서 못하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조용히 노를 놓는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새벽녘 당신의 마을이 서서히 움직일 때면 개로의 역사가 끝난다 이윽고 개로의 역사가 끝났다











#### 파주문화원

소재 파주 인문, 자연

작사 박혜순

작곡 구민상

편곡 구민상

노래 이희주

### 우리는 파주랍니다

지역 시민공모로 채택된 가사로 파주지역의 특산품과 수 려한 자연경관을 소재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트로트 장르 곡으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매력인 곡. 원 제는 '여기는 파주랍니다' 였으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그리고 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 파주를 만든 다는 의미로, '우리는 파주랍니다' 로 노래 제목을 붙였다.





장단 콩 파주 명물 윤기 좔좔 맛도 좋아 기력을 보충해요 백세 인생 필수 웰빙 숙명 한 장단콩 알콩달콩 여기는 파주랍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힐링 하러 오세요 자연 속 건강한 땅 DMZ 청정지역 웰컴투 힘이 불끈 파주인삼 여기는 파주랍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덩실덩실 바람도 햇살도 손잡고 춤을 추는 어울림 가득한 이곳 여기는 파주랍니다

화석정 정자 위에 사뿐히 앉은 햇살 자유를 노래하는 임진강 바람소리 너와 나 우리 모두 한마음 여기는 파주랍니다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경기도의 오늘.

경쾌하고 활기찬 리듬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개개인의 다른 삶의 모습이 더해져 다이내믹한 경기도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피아노와 비올라, 클라리넷이 주고받는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하였고, 경쾌한 드럼비트와 깊고 중후한 콘트라베이스가 더해져 하나의 아름다운 곡이 완성된다.





#### 동두천문화원

소재 동두천도시

작사 홍동현

작곡 홍동현

편곡 이경봉

노래 홍동현

# 동두천 CITY POP

90년대 동두천의 하루와 지금 여기 동두천의 하루를 소 재로 한 곡이다.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동두 천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추억을 갖고 있는 장소들 을 가사에 넣어 공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렌디한 시티 팝 장르에 동양적인 보컬, 재치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돋 보이는 곡.





아무런 계획 없이 길을 나섰어 오늘은 왠지 좀 걷고 싶더라고 걷다보니 밀려오는 배고픔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을 해 만리향 태화관 지금은 먼지가 된 먹자골목 둘리분식 중앙동 거리까지 호수신진 원터유정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소요산 언저리까지

\*홀짝 들이켜 버려 뭐가됐든 울쩍 해진 맘은 내려놓고 슬쩍 고갤 돌려보면 여기 동두천의 향기가 느껴져 훌쩍 떠나 버려 어디든 다 울쩍 해진 맘은 내려놓고 슬쩍 고갤 돌려 보면 여기 동두천의 향기가 느껴져

배도 부르겠다 어디 갈데없나 오늘은 왠지 좀 걷고 싶더라고 오랜만에 가까운 곳 떠나려해 친구 녀석에게 전활 걸어보네 소요산 자재암 운동 삼아 공주봉 보산동 공방거리 이국적인 음식까지 지행동 신시가지 친구 만날 땐 대풍당 나목쇠목 계곡까지











### 광명문화원

소재 민회빈 강씨

작사 최경윤

작곡 최경윤

편곡 최경윤

노래 이혜민

## 달과 바람에 실어

광명의 민회빈 강씨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조선 후기 소현세자비인 강씨는 병자호란 후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간다. 9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지만 소현세자는 병사하고, 민회빈 강씨는 사사(賜死)된다. 피아노와 국악기의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편곡으로, 조선과 부모님, 소현세자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



꿈에도 그리운 조국 언젠간 갈 수 있을까 나의님과 함께 청나라에 끌려왔어도 이겨내리

모든 힘을 바쳐 먼 길 이곳에 끌려온 백성들을 구원하리 다시 돌아간다 내 아이들과 내 님과 함께 우릴 비추는 찬란한 빛 따라 이 길을 견딘다 지켜내야 한다 아- 꿈같던 그날 오기를 언제일까 이 마음 닿기를

가슴가득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 슬픈 누명만 얻었네 다시 빛나리라 억울하게 저문 별들과 먼저 간 내님 그리워라 나도 버틸 수 없구나 남겨진 내 아들아 부디 몸성히 있기를 바라거니 이마음 닿기를

다시 빛나리라 내가 가도 이 마음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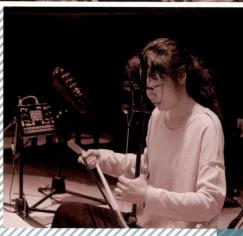












#### 평택문화원

소재 평택 인문,자연

작사 최치선

작곡 김형진

편곡 김형진

노래 조우정

## 평택은 들이다

평택을 상징하는 너른 들은 땀과 눈물,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의 공간이다. 간척으로 일군 땅과 대대로 살아 온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직도 생명과 평화의 땅이며 희망이며, 풍요로운 우리들이라는 의미로 창작된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 상쾌한 보컬과 멜로디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넓고 푸른 들과 강이 어우러지는 파란하늘 하얀 구름 둥실 떠 있는 거기 사람 있네 마을이 있네 땀과 눈물 깊게 심은 생명의 땅 평택은 들이다 우리들이다

상큼한 연두 싱싱한 초록 넘실거리는 가슴벅찬 황금빛 노을 널리 퍼지는 거기 사람 있네 마을이 있네 기쁨과 슬픔 함께 누리는 평화의 땅 평택은 들이다 우리들이다

















#### 용인문화원

소재 처인성

작사 이바오 작곡 구민상

편곡 구민상 노래 이희주

# 처인성 연가

고려시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몽골군으 로 부터 승장 김윤후(金允候)와 부곡민들이 분연히 일어 나 몽골군을 격퇴시킨 역사의 현장인 처인성 전투를 소재 로 만든 곡이다. 한 겨울 추위와 가난,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성들이 이루어낸 승리로 이를 기념하고 알리고자 만든 곡으로, 맑은 보컬 속에 처연하고 비장함이 흐른다.





처인성에 눈 내린다 모두 활을 메어라 출전이다 눈보라 아무리 거세도 우리 가는 길을 막진 못하리

\*우리에겐 처인성 부곡민의 피 끓는 기상이 있다네 단군이 보우하사 천만대 이어갈 내 강토 굳게 지키세

말발굽에 짓밟힌 고향산천 보고만 있을소냐 대륙만방 휩쓸은 몽골인들 그 무엇이 두려우랴













### 연천문화원

소재 연천 인문, 자연

작사 박봉학

작곡 박봉학

편곡 유영하

노래 박봉학

## 내 사랑 연천 아리랑

용산에서 연천을 거치는 경원선 철길을 따라 아름다운 강과 황금빛들녘이 펼쳐지던 추억과 낭만의 고장 연천. 지금은 DMZ 접경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다. 이산의 슬픈 사연과 그리움을 달래려 부르던 노래를 아리랑으로 승화시켜 행복한 사람들이모여 사는 아름다운 연천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람으로 만든 곡이다. 누구나 쉽고 신나게 부를 수있는 트로트장르로 구수한 보컬의 음색과 재미있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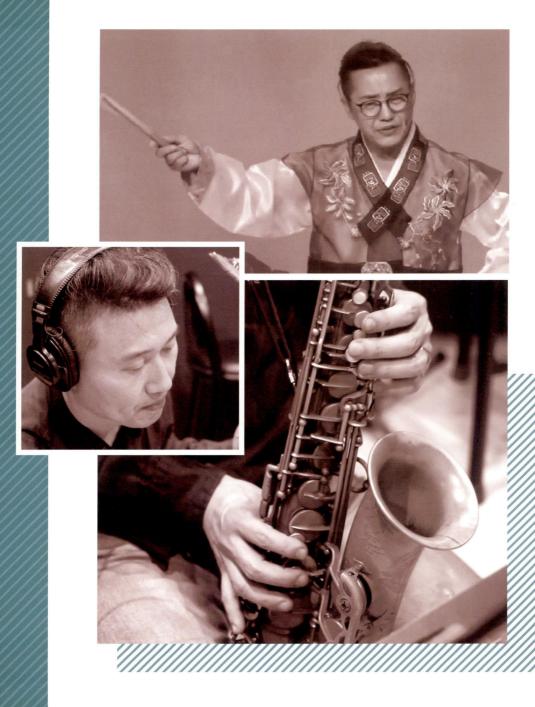


아리랑 고개로 쓰리랑 고개로 넘어 넘어 넘어 간다 나는야 간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내 고향 연천에서 우리들이 부르던 아리랑 언제나 꿈속엔 소꿉친구들 눈뜨면 저 멀리 멀어져버린 추억 속에 내 고향 내 친구야 용산역에서 연천역까지 경원선은 달려가네 아리랑고개

\*어서 만나보자 불러보자 어화둥둥 내 사랑 내 친구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 사랑 연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쓰리랑 고개로 넘어 넘어 넘어 간다 나는야 간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내 고향 연천에서 너와 내가 부르던 아리랑 언제나 꿈속엔 부모 형제들 눈뜨면 저 멀리 멀어져버린 가슴속에 내 고향 내 형제야 용산 역에서 연천역까지 나는 나는 노래하네 아리랑 가락











### 김포문화원

소재 조강포구

작사 최경윤

작곡 최경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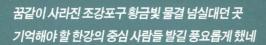
편곡 최경윤

노래 이혜민

# 다시 꿈꾸는 조강

김포시는 북한 개풍군과 조강(祖江)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조강포구 마을은 분단 이후 66년 동안 잃 어버린 마을로 남아 있는 곳으로, 남북이 분단 되기 전 마 포로 가는 모든 물자와 여객선이 조강포구에 정박했던 물 류 중심 지역이었다. 할아버지의 강이라 불리는 조강의 활 기찬 그 때를 다시 꿈꾸며 그리움을 담은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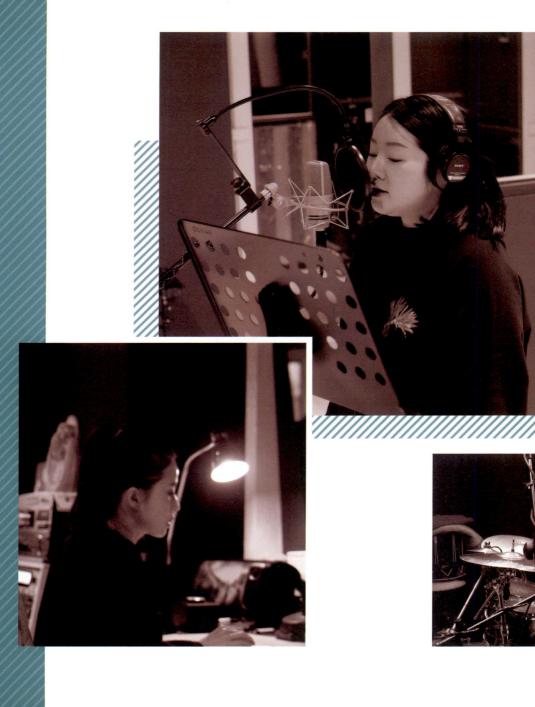




조의 뜻은 가족의 뿌리이오 조강은 강의 근원이라 강의 시작이오 끝은 조강으로부터 이어져오네 모든 것을 품어주는 할아버지 강 걱정과 근심까지 다 흘려 보내주네 흘러가는 강과 웃음 같이 춤추던 곳 찬란했던 조강 아련하여라

멈춰진 칠십년 포구 마을 남북의 슬픔과 같이 사라진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같이하는 큰 뜻이 있는 강

조의 뜻은 가족의 뿌리이오 조강은 강의 근원이라 강의 시작이오 끝은 조강으로부터 이어져 오네 모든 것을 품어주는 할아버지 강 이별의 슬픔까지 모두 안아주네 땅과 물이 하나 되어 같이 춤추던 곳 시종의 강물결 일렁인다









#### 이천문화원

소재 일본항거소년

작사 이석진

작곡 이석진

편곡 장현숙

노래 임선혁

초롱초롱 동요학교

## 장호원난다

이천 장호원에는 일제시대에 항거했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독수리소년단'을 조직하여 이천전역에 벽보를 부착하고 전국에 격문을 보냈다.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참여 했던 당시 어린이들의 뜨겁고 소중한 열정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창작한 곡이다. 국악기와 나레이션, 소년스러운 보컬과 이천지역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불러 더욱 의미 있는 곡.





(모여라 모여라 우리는 장호원 독수리 소년단 우리힘으로 독립을 이룰 거야)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나와 장터길 내달린다 벗들의 손을 잡고 우리 봄 올거라고 하늘 높이 외쳐본다

\*난다난다 난다 난다난다 난다 난다난다 자유로이 난다난다 푸른 꿈들

운동장 기로질러 청미천 위로난다 장호원 구석구석 온나라 방방곡곡 서해 푸른 동해 가로질러 큰바다로 \*\*억억다리 전봇대 위로 이천 터미널 버스들 위로 복하천 두루미 따라 기치미 고갯길 따라 이벽 저벽 이담 저담 이벽 저벽 이담 저담 올라온다 치솟는다 빛나는 독수리 이천하늘 높이 난다난다 난다 설봉산 봄나물 향기위로 난다난다 난다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글자 얼기설기 삐뚤빼뚤 우리밥상 뒤엎고 우리세상 어지럽히는 시리고 허튼 것들 물러간다 겨울같이 간다간다 간다 간다간다 간다 간다간다 허튼 것은 물러간다 겨울 같이

난다난다 난다 자유롭게 난다난다 난다 (대한독립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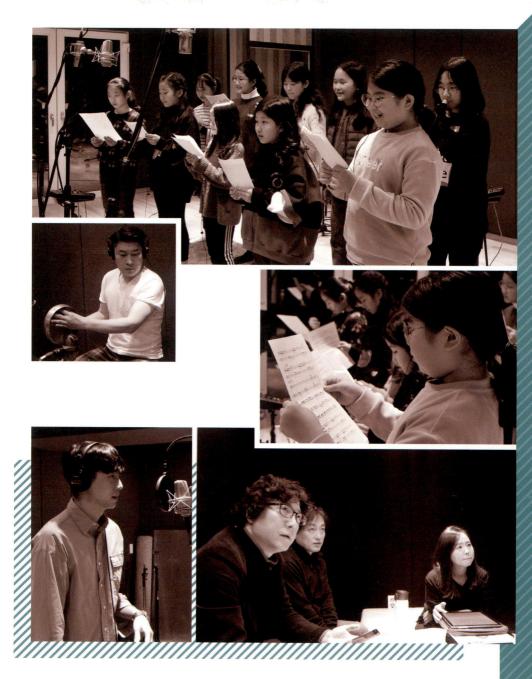












작곡 이상진



# **Two Steps Behind**

신비로운 마림바로 시작하는 이 곡은 천년 경기의 과거부 터 현재까지를 음악에 담았다. 해금과 클라리넷이 주고 받 는 곡의 흐름은 과거에서 그리는 신비한 미래, 현재에서 만 나는 아련한 과거를 오간다.













####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 화성 가는 길



####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 - 호조벌에서





#### 같이 걸을까





#### 금수정에 올라













#### 도미 아리아











D.D. a. 00

#### 우리는 파주랍니다



#### 동두천 CITY POP



#### 달과 바람에 실어

작사/작곡 최경윤

















#### 평택은 들이다



### 처인성 연가



#### 내 사랑 연천 아리랑



#### 다시 꿈꾸는 조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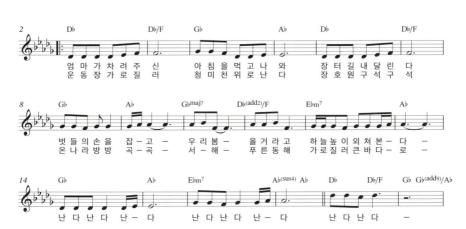
#### 장호원 난다

작사/작곡 이석진 편곡 장현숙

.. = 56 굿거리 풍으로



모여라 모여라 우리는 장호원 독수리 소년단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룰거야 대한독립 만세!





























## 새로운 경기도의 노래를 만나다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1

세상은 노래로 가득하다. 이미 만들어진 노래도 다 못 들을 정도로 많다. 전 세계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곡이 20,000 곡이라고 했던가. 한국 대중음악의 경우 하루에 30장 이상의 신곡과 새 음반이 새로 더해진다. 누군가 애써 만든 노래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 날아간다. 어떤 노래는 손에 닿아 내내 만지작거리는 노래가 되고, 어떤 노래는 심장에 꽂혀 핏줄을 타고 흐른다. 장르와 스타일, 이야기도 다양하다. 음악이 상품이 된 시대,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만날수 있는 시대, 음악은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깝다.

그런데 요즘 음악에는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는 드물다. 우리 동네 큰 나무 이야기라든가, 동네 마트 김씨 이야기, 늘 보는 앞산이나 뒷강 이야기가 노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초.중.고등학교 교가에는 남아 있지만 대체로 천편일률적이다. 음악이 민요처럼 창작자를 알 수 없는 만인의 손에서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 뒤의 변화이다. 대중음악에는 흔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 홀로 감당하는 외로움과 자신을 밀고 가는 꿈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음악에 동네가 없고, 지역이 없다.

물론 자이언티의 〈앙화대교〉,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정태춘, 박은옥의 〈정동진〉처럼 특정 지역을 노래한 곡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안정애의 〈대전부르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처럼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대표해온 곡들도 있다. 각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아는 노래들은 어느새 그 지역의 얼굴이 되었다. 표정이 되고 주름살이 되고 눈물이 되었다. 눈물 닦는 손수건이 되기도 했다. 깃발처럼 펄럭이는 노래들도 적지 않다. 지역 명물이나 특산품처럼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는 지역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며 애환을 달래고 지역을 지켰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노래들은 고향으로 가는 열차, 아니 고향이나 진배없다.

하지만 이 노래들은 대부분 도나 광역시 단위의 큰 지역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보다 작은 우리 동네이나 지역을 노래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의 지역 노래가 트로트 장르라서 젊은 세대의 감성에

<sup>1</sup> 대중음악의건가. 2004년부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광명음악벨리축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대중음악웹진 가슴 편집인과 대중음악웹진 보다의 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 〈Red Siren〉콘서트,〈권해효와 몽당연필〉콘서트, 서울와우북페스티 벌 등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연출/평가도 병행한다. 『음악편에-음악을 편들다』, 『밥 달런, 똑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아』를 썼으며,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인간 신해철과 넥스트시티』는 함께 썼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음반리뷰』,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음반 인터뷰』,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음반 인터뷰』, 『레전드 100 아티스트』, 『음악과부도』, 『나쁜 장르의 B급 문화』, 『한국대중음악명반 100』도 거들었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꿈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이메일은 bandobyul@gmail.com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더 이상 없는 풍경을 기록해 새로운 세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을 현재의 음악어법으로 기록한 노래는 적다. 노래에 지역은 이름만 들어가고 대동소이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음악 안에도 지역이 고르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 지역의 인디 뮤지션들이 지역을 주제로 음반을 내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이권형, 파제 등이 주도한 '인천의 포크 싱글 시리즈' 작업과 경인방송이 제작한 [인천 - Sound of Incheon], 임인건의 [All That leful 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을 노래하는 일은 지역 자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는 벌써 24년째 되어가지만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대부분의 권력과 콘텐츠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의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인인 동시에 특정 지역의 시민/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표준화할 일이 아니다. 사투리를 희화화하거나 여러 지역의 핫 플레이스만 쫓아다닐 일도 아니다. 식량을 자급하는 일이 중요하듯, 지역의 문화 역시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마다 다른 상황과 역사와 삶을 온전히 단을 수 있다. 지역사람들도 서울만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역아카이브 및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를 만든 일은 시도 자체로 반짝인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18개 지역 내의 향토사학, 마을지, 발간 서적,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을 1곡씩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18 곡의 음악을 두 장의 시다에 담았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만든 자료 대부분이 책자 중심이다 보니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달라진 시대에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음악의 힘이 강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악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다. 광고/영화/드라마/영상물 등으로 활용하기도 편리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음악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니 음악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 〈여수밤바다〉처럼 잘 만든 음악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좋은 음악은 지역을 재생시키는 밀거름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원을 통해 지역 노래의 소재와 주제를 모으고 함께 기획했다. 그러나 지역의 이야기를 서울의 창작자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방식으로는 지역의 문화를 튼실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알토란 같은 작사가와 작곡가를 찾아 작업을 부탁했고, 노래와 연주 역시 각 지역의 뮤지션들에게 맡겼다. 그래야 지역의 문화가 성장할 뿐 아니라 작업의 열매 역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노래한다는 결과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문화역량이 일을 하고 경험을 쌓으며 콘텐츠를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총괄기획을 맡고 프로듀서, 편곡자와 협력하여 음악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열여덟 곡의 새로운 노래가 태어났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음반이다. 광명을 노래한〈달과 바람에 실어〉, 광주를 노래한〈닫이 걸을까〉, 구리를 노래한〈동구롱에서〉, 김포를 노래한〈다시 꿈꾸는 조강〉, 동두천을 노래한〈동두천 City Pop〉, 수원을 노래한〈화성 가는 길〉, 사홍을 노래한〈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호조벌에서〉, 양주를 노래한〈유앙팔경〉, 연천을 노래한〈내 사랑 연천 아리랑〉, 용인을 노래한〈유앙팔경〉, 연천을 노래한〈내 사랑 연천 아리랑〉, 용인을 노래한〈유엉팔경〉, 연천의 노래한〈내 사랑 연천 아리랑〉, 용인을 노래한〈우리는 파주랍니다〉, 평택을 노래한〈평택은 들이다〉, 포천을 노래한 〈금수정에 올라〉, 하남을 노래한〈토미 아리아〉, 경기도를 노래한〈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Two Steps Behind〉,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가 세상에 나왔다. 곡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기도 곳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제목들이다. 노래를 듣고 노랫말을 찾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경기도 곳곳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음반을 위해 최경윤, 장현숙, 유영하, 홍동현, 정수자, 문혜주, 이바오, 박봉학, 구민상, 이석진, 박혜순, 최치선, 김형진, 이상진 등의 아티스트들이 작사와 작곡, 편곡을 맡았다. 파주의 노래인 〈우리는 파주랍니다〉는 지역 내에서 작사를 공모했고, 수원의 노래인 〈화성 가는 길〉은 지역 시인이 작시를 맡았다. 이 이름들은 서울 밖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몰랐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툭툭 건드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현실은 더 쑥스럽다. 영화 〈곡성〉의 명대사처럼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채살아가는 현실이다.

열여덟곡의 음악은 제목만큼, 다른 지역만큼 다르다. 민회빈 강씨를 노래한 〈달과 바람에 실어〉는 한국 전통음악의 악기를 활용해 애절함을 더했고, 〈같이 걸을까〉는 어쿠스틱 팝의 어법으로 노래하며 지금의 젊은 세대를 남한산성으로 이끈다. 경쾌한 색소폰 연주와 리듬감이 돋보이는 〈동구릉에서〉는 상큼함이 넘친다. 이 음악을 홍얼거리며 홀쩍 동구릉으로 향하고 싶어지는 음악이다. 〈다시 꿈꾸는 조강〉은 강과 바다를 삶으로 연결하는 담담하고 서정적인 시선이 깊다. 음반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주는 좋은 곡이다. 〈동두천 City Pop〉은 복고적인 스타일을 더해 음반을 감각적으로 부풀린다. 트렌드한 곡 덕분에 음반의 생동감이 배가된다. 〈화성 가는 길〉은 피아노

연주에 실은 보컬의 간절함이 조화롭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호조벌에서〉는 땅은 믿음이요, 땅은 생명이라는 신념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동네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치까지 설파하는 노래는 지금 이곳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웅변한다. 반면 〈유앙팔경〉은 홍겨운 트로트 리듬으로 양주의 아름다움을 흐드러지게 노래한다. 〈내 사랑 연천아리랑〉의 트로트 가락도 오래도록 동네를 지켜온 이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대변한다. 젊은 세대부터 장년〉노년 세대까지 고르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장르의 품이 넓은 음반이다.

어떤 곡은 감상하며 듣고 어떤 곡은 홍겹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다채롭다. 〈처인성 연가〉는 슬로우 비트의 록킹한 곡으로 호국기상이 뜨겁다. 〈우리는 파주랍니다〉는 애향심이 뚝뚝 떨어지고, 〈평택은 들이다〉는 싱싱한 여운이 감돈다. 평택의 들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표현도 재치 넘친다. 〈금수정에 올라〉는 금수정에 묻은 추억을 해맑은 목소리로 호출한다. 〈도미 아리아〉는 하남의 오래된 역사를 굳세게 불러내는 개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경기도의 노래, 경기도 곳곳의 노래가 완성되었다. 노래가 경기도 곳곳으로 바람처럼 단비처럼 흘러가기를. 노래는 삶으로 이어지고 지역을 북돋을 것이다. 지금 여기의 노래는 바로 지금 이 곳에 사는 모든 우리를 위한 노래, 우리들 자신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드문 일, 그러나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함께한 사람들

production: 문화예술기획 MOTRA

producer 이윤슬 music director 이상진 coordinator 오다예 lyric making\_박봉학, 박혜순, 장현숙, 정수자, 유영하, 윤한택, 이바오, 이석진, 최경윤, 최치선. 홍동현 composer 구민상, 김형진, 문혜주, 박봉학, 유영하, 이상진, 이바오, 이석진, 장현숙, 최경윤, 홍동현 arranger 구민상, 김형진, 문혜주, 유영하, 이경봉, 이상진, 장현숙, 최경윤 acoustic guitar/electric guitar 김석철, 안강호, 이경봉 keyboard 문혜주, 유영하, 장현숙, 최경윤 electric bass guitar/ contra bass 이상진 drum 이광혁 saxophone 구민상 clarinet 여강림 viola 정민경 percussion 박광현 해금 김용선 대금 이명훈 타악 황영남 computer programming 유영하, 이경봉, 이상진, 최경윤 vocal 권소린, 김성준, 박봉학, 윤덕현, 이다운, 이혜민, 이희주, 임선혁, 조용준, 조우정, 최다예, 홍동현 rap 전세한 narration 염상덕 chorus 권소린, 곽재연, 박경윤, 신수지, 채수범, 김진경, 박지연, 안호진, 이수현, 전지훈, 초롱초롱 동요학교 sound engineer 이정면 mixing/audio mastering 이정면 transcribed by 장현숙 image plan 정지희 video photographer 김남두 recording studio: EUM SOUND video production : 미디어솜씨 album design : 다랑어스토리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경기편 vol.

인 쇄 2019.12.20

발 행 2019.12.20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인 김태웅

기 획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이 음반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이 음반은 저작권법에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